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6:1상)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6:1하)

물론 아닙니다. 죄를 계속 지으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타내시는지 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6:2상)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원리를 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6:2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생했다면, 옛날의 적은 어디 있나요? 옛날의 적은 죽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하니, 나가서 죄를 짓자'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6:3).

물이 무덤을 나타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까? 당신이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됨을 깨닫지 못합니까? 당신이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6:4).

이제 아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고, 성령님으로 쫓아 사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아담의 기질인 육신을 쫓아 사는 생활은 옛 것이었습니다. 그 때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었고, 육신의 욕심으로 양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동물과 같은 생활, 곧 몸과 혼인 이원적인 생활이었으며, 몸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곧 혼은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육신의 욕심에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욕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이 중생을 했으면, 다시 말해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당신은 다시 태어나므로, 새 생명인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이 우위를 차지하고, 새 생명의 영적인 생활이 시작 되는 것입니다. 옛 생활은 육신적인 생활입니다. 새 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합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된 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것에 관한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의식 상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 이러한 것들이 나의 의식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적인 생각이나 육적인 욕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침례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바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6:5)

내가 물위로 올라올 때에, 마치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듯이, 나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 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6)

죄의 몸의 일은 끝났습니다. 죄의 몸이 더 이상 나의 생활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의식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은 아직도 우리에게 육신의 욕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를 육신의 욕심과 욕구 아래로 몰아 넣어 지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있기 때문에, 육은 나의 영에 대해서, 나의 영은 육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을 지배하려는 이 두 가지의 소욕이 항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 나의 생활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고, 나의 영도 나의 생활의 왕좌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과 나의 육, 이 둘이 항상 나의 생활을 주장하려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항상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을 그 때는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어떤 날, 곧 끝나게 될 것인데, 나의 영이 이 몸을 떠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이 몸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 몸에 살고 있는 한, 나의 마음을 장악하려는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몸을 항상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과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9:27) 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쟁이요, 싸움입니다. 나의 육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있고, 나의 육이 내 마음의 왕좌에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죽는 과정입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육의 사람이 주장하여 살아온 육신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옛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혈기 날 때, 주님, 그것은 옛 사람에게 속합니다. 몹시 분한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은 옛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성이 날 때에, 그것도 옛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의 통치 아래 살 필요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주관치 못하므로, 이제는 죄에 중 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6:7-10)

나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의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얼마나 많은 때에, 내가 내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흥측한 옛사람의 꼴이 나타나니,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에게 가책을 주십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어, 말하기를, ‘오 하나님, 또 내가 이런 일을 했군요.’ 나는 하나님께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님, 나는 이것을 죽은 옛사람의 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것의 통치아래 더 이상 살게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네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여겨라.” 여기서 “여긴다” 라는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만일 나의 육의 몸이 죽었다면,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 날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몸이 죽은 후에는 죽는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이 지금 당당히 살아 있기 때문인데, 너무나도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실을 눈물을 머금으며, 고통스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6:11)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이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6:12)

죄로 하여금, 또 몸의 사욕으로 하여금 너희 몸을 다스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6:13)

나의 손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육을 위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성결하게 하시사, 주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발이 많은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나의 발이 악한 일에서 멀리 떠나도록 나를 옮겼습니다. 악한 일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재빨리 멀리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하나님을 위해서 민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도록 바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몸을 육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바쳐드립니다. 항상 나의 왕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의 입을 주님께 바쳐드려 하나님의 복 주심과 권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당신의 말을 통해서 축복 받고, 변화되는 일도 할 수 있으나, 당신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기도 하고,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나의 몸을 파괴의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나의 생활에 미움으로 가득채워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에 사랑으로 가득채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바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약속의 성경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6:1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란 과녁을 빗나갔다는 뜻인데, 내가 활을 쏠 때마다 과녁에 적중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못하며, 완전이란 것과는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30년을 동행한 후에, 하는 말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 3:12) 고 했다. '오 바울 사도여, 나도 당신과 같은 형편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한 목적을 나의 생활에서 아직 성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최종적인 목표에, 아직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생활에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해치는 자도 아님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치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폭군인 죄의 능력과 욕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주관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으로 중생하였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곧 새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6:15)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어떤 것에든지 뛰어들기를 주저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6:16)

모든 사람은 통치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인도 아니며, 선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능력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배를 택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권세를 쫓아 살든지 양자 택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에게 종이 됩니다. 이러한 비극이 에덴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찌니라" 하셨는데, 사탄은 와서 하는 말이, 이브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보라. 이것은 좋고, 맛이 있다. 그리고 죽지 않을 테니, 먹어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자기를 보호하시느라고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한번 시험 삼아 먹어 보라.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 한 입만 먹어 보라. 만일 싫으면, 다 먹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브의 행위는 두 가지의 것을 동시에 행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사탄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제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6:17)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한 때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6:18-19)

만일 우리가 이전에 마귀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듯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한 열심을 낸다면,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다 바친 것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큰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오. 바울은 우리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바친 것과 같이, 우리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자! 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그러한 태도가 마음에 듭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주님의 일과 주를 위해 봉사하는 말이 나왔으니, 한번 시도해 봅시다. 전력을 기울여서 시도해 봅시다. 우리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바치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다 바쳐서 살아봅시다.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 원하는지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사람은 그저 술 몇 잔 마시고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주저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 하였느니라 21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6:20-21)

당신이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 생활에서 무슨 열매를 거뒀습니까? 불행히도 그 열매는 고통스런 열매이며,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6:22)

이제 영광스러운 열매가 나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6:23상)

사탄은 그의 종에게 일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종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좋은 값을 지불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당신이 죄를 계속 지으면, 거기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과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6:23:중)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값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6:23하)

우리는 아주 정반대의 것을 봅시다. 죄의 값, 곧 육신을 쫓아 사는 생활은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그 결과가 영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죄의 병기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나의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네’ 라는 한 찬송의 시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주를 통하여, 주님에 의하여 주신 영생의 선물. 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루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한 균형된 삶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고, 화평과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생활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 의의 병기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당신의 이름다움을 죄 많은 세상에 나타내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합니다. 아멘

우리가 7장과 8장으로 가는데, 이 두 장은 아주 대조적인 장입니다. 7장은 우리가 이상적인 것을 보고, 이상적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상적인 것을 성취하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를 아주 깊은 절망으로 몰아 넣게 됩니다. 내가 인정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것을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에 나타나는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8장은 절망에서 나를 이끌어 내어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승리로 이끄는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경험하는 것과 같이 처음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시도해 보다가 안 되면, 설명서를 다시 쳐다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일을 우리 자신이 먼저 시도해 보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영광스러운 생활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